

베이비몬스터 “7명 데뷔 당일...신인상 한번 더 도전”

‘리틀 제니’ 아현 합류 후 데뷔일 변경
 “블랙핑크 동생으로 관심 많이 받아”
 “YG DNA 가득...발전 가능성 높아”
 “다국적 멤버들과 글로벌 활동 타깃”

“7명에서 데뷔하는 건 당연했어요. 7명이 단단하게 뭉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더 기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비몬스터는 1일 서울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진행된 미니 1집 ‘베이비몬스터(BABYMONSTER)’ 발매 기념 인터뷰에서 이렇게 데뷔 소감을 전했다.

이들은 데뷔 날짜가 변경된 이례적인 그룹이다. 앞서 자체 서바이벌 프로그램 ‘라스트 에블루션(Last Evaluation)’을 통해 7인조로 데뷔가 확정됐는데, 멤버 아현이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 시간을 갖기로 했다. 나머지 6명의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디지털 싱글 ‘배터 업(BATTER UP)’을 발표하며 데뷔를 치렀고 신인상까지 받았다. 이후로도 6인조로 신곡 ‘스턱 인 더 미들(Stuck In The Middle)’을 발표했다.

아현이 복귀를 알리면서 완전체가 된 베이비몬스터는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갔다.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미니 1집 발표일을 정식 데뷔 일자로 못 박았다. 신보 이름에 팀 영어 철자의 T를 일곱 멤버를 상징하는 7로 번주를 주면서 완전체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K팝 그룹들이 정식 데뷔 전 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데뷔 이후에 공식 날짜를 바꾸는 일이 흔치 않기에 이슈가 됐다. 자연스럽게 프리 데뷔곡이 된 발표곡들은 7인 버전으로 재녹음해 이번 앨범에 실었다.

멤버들은 “아현이가 합류하게 되면 정식 데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당연하게 기대했다”고 했다. 로라는 “신인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도전해 보고 싶다. 올해 목표는 글로벌한 아티스트로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반면 아현은 멤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빨리 회복하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완전체로 데뷔했으면 좋았겠지만, 6명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듣든했어. 제가 돌아왔을 때 ‘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긴장감이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뷔 앨범의 색깔은 기존 YG 걸그룹의 분위기와 비슷하다. 타이틀곡 ‘쉬시(SHEESH)’는 강렬한 사운드의 힙합 댄스 장르다. 가사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엮여있다. “쉬시”는 놀라움을 뜻하는 감탄사예요. 안무를 하면서 손을 돌리는 안무도 있고 몬스터를 표현하는 손동작도 있어요. 벌써부터 댄스 챌린지를 많은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글로벌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베이비몬스터의 데뷔는 K팝 팬들에게는 핫이슈일 수밖에 없다. 투애니원(2NE1), 블랙핑크 등 독보적인 색깔의 걸그룹을 배출해 낸 YG의 7년 만의 걸그룹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몬스터의 이전 곡들이 YG에서 볼 수 없었던 스타일이라고 비교된 것도 선배들의 색깔이 강렬해서다.

“블랙핑크 동생 걸그룹”이라는 수식어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에요. 덕분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게 감사해요.”(라미)

“블랙핑크 선배님은 저희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할 때도 멘토로서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관중을 생각하는 애티튜드가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월말 평가 때도 오셔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로라)

특히 아현은 블랙핑크 제니를 닮은 외모와 빼어난 실력으로 ‘리틀 제니’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제니 선배님은 연습생 때부터 우상이었어요. 롤모델로서 가장 큰 영감을 주는 분이었고. 리틀 제니라는 수식어로 불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니 선배님처럼 잘하면서, 저만의 색깔 찾아가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베이비몬스터가 역대 YG 걸그룹과 차별점이 있다면 한국인 멤버보다 해외 멤버가 더 많은 것이다. 한국 국적의 아현(17)·라미(17)·로라(16), 일본 국적의 루카(22)·아사(18), 태국 국적의 파리티타(19)·치키타(15)로 구성됐다. 이들은 0시에 음원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타깃 활동을 펼치고 있다. 로라는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으니 글로벌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만의 힙합 무드를 살려서 개성있는 곡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신했다.

“저희만의 색깔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에요. 저희는 YG DNA가 가득한 그룹이 아닐까 싶어요. 힙하고 틴(Teen)스럽기도 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게 저희만의 매력입니다.”(로라)

아시아 5개 지역 팬미팅 투어와 일본 대표 음악 페스티벌인 ‘서머소니 2024’ 출연 등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 팬미팅 개최 지역에 빠져있어 아쉬움을 안기기도 했다. 아현은 “사실 준비한 게 많은데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좀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국내 첫 음악방송 활동을 강조했다. “이전에는 아현 언니가 함께 활동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같이 음악방송을 하게 됐다. 다 같이 설레고 있다. 팬들을



만나 뵈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베이비몬스터는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르며 팬들에게 양면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습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베이비 같이 장난기가 많아요. 연습할 때나 무대에 설 때는 몬스터처럼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나이가 꽤 전체인데 어리니가 티스러운 매력도 많이 보여주고 싶어

요.”

“괴물 신인’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싶습니다. 실력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요. 춤이나 랩, 보컬 모두 잘할 수 있게 연습하고 있습니다.”(아사)

“모든 아이돌이 목표로 하는 코레라 무대에 서는 게 목표예요. 글로벌 팬들에게도 음악적 역량을 보여주고 싶습니다.”(로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美 ‘켈리 클락슨 쇼’서 신곡 무대

타이틀곡 ‘데자뷰(Deja Vu)’ 퍼포먼스 선보여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미국 NBC 인기 프로그램 ‘켈리 클락슨 쇼(The Kelly Clarkson Show)’에 출연했다.

이들은 3일(현지시간) 방송된 ‘켈리 클락슨 쇼’에서 최근 발매한 미니 6집 ‘미니소드3: 투모로우(minisode 3: TOMORROW)’의 타이틀

곡 ‘데자뷰(Deja Vu)’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켈리 클락슨 쇼’는 미국 최고 권위의 TV 시상식인 에미상(E Emmy Awards)을 3차례 수상한 인기 토크쇼 중 하나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지난 2022년 5월 미니 4집 ‘미니소드2: 델스테이즈 차일드(minisode 2: Thursday’s

Child)’ 발매 당시에도 이 토크쇼에 출연했다.

켈리 클락슨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K팝 그룹 중 하나”라며 “이들은 높은 글로벌 위상을 얻으며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2023 MTV Video Music Awards)’에서 수상하고 헤드라이너로 ‘롤라팔루자(Lollapalooza)’ 무대에 섰다”라고 소개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특별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시작했다. 팀의 데뷔 연도 ‘2019’가 적힌 동전을 옮겨주었다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는 모래와 2019년도가 떠오르는 소품 등으로 그리움을 표현했다. 다섯 멤버는 파워풀한 군무와 표정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미니소드3: 투모로우’는 과거의 약속을 기억해 내고, 약속했던 ‘너’를 함께 찾으러 가는 이야기를 그린 앨범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 앨범에 ‘너와 함께하는 내일이 곧 희망이자 구원’이라는 자신들만의 구원 서사를 담았다. ‘데자뷰’는 트랩(Trap)의 하위 장르인 레이지(Rage)와 이모 록(Emo rock)이 결합된 팝 장르다. 과거의 약속처럼 너와 내가 다시 만날 미래가 마치 데자뷰처럼 느껴진다고 노래한다.

황정음, 상간녀 오해 “피해 입혀 사과”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생각 없이 다 때려치고 여행만 다니고 싶다. 꿈 깨이지”라고 썼다. 황정음은 이 게시물을 지우고, 인스타그램에 다시 올렸다.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줄래? 내가 이리 올리는 이유 딱 하나”라며 “가출한 영돈아. 이혼 좀 해주고 태국 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퍼졌다.

A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황정음이 저격한 이영돈 상간녀 아니”라며 “이영돈 뭐 하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분도 내 존재 자체를 모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평소 ‘SNL’ 안 보는데, 이번에 황정음 응원해서 처음으로 끝까지 시청했다. 황정음님, DM 확인해달라”고 청했다. A 친구 역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별명 하나 때문에 친구가 상간녀로 오해 받고 있다”며 “이영돈은 ‘이영’이라는 내 이름 때문에 생긴 별명이다. 황정음 남편 이영돈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제대로 된 정정글과 사과 부탁드린다”면서 “근거 없는 스토리에 내 친구들과 나까지 피해 입고 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황정음은 2016년 이영돈과 결혼한 지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20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냈지만, 1년 여 만인 2021년 7월 재결합했다. 슬하에 두 아들이 있다. 3년 만인 지난달 두 번째 이혼 소송 중인 소식이 알려졌다. 소송사 와이윈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씨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혼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이후 SNS를 통해 남편 불륜 폭로를 이어갔다.

황정음은 29일 첫 방송한 SBS TV 금토극 ‘7인의 부활’에서 활약 중이다. 제작발표회에서 “개인적인 일로 배우, 스태프, 감독님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죄송스럽다”며 “연기는 연기,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접어두고 본연에 집중했다. (이혼과 연기) 같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본연에 몰두하겠다”고 했다.

세븐틴·르세라핌·김준수·김재중, 하이브 ‘위버스콘’ 출연

대세 K팝 그룹 ‘세븐틴’과 ‘르세라핌’이 하이브(HYBE) 음악축제 ‘위버스콘 페스티벌(Weverse Con Festival)’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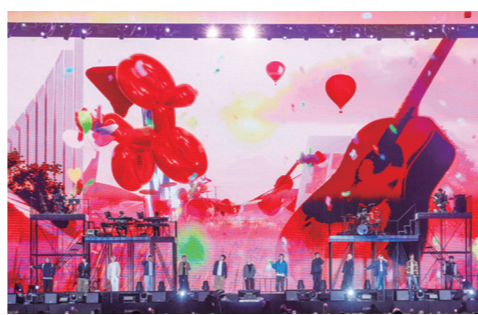
3일 하이브에 따르면, 세븐틴과 르세라핌은 오는 6월 15~16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리는 ‘2024 위버스콘 페스티벌(Weverse Con Festival)’ 2차 아티스트 라인업에 포함됐다.

지난해 1600만장이라는 국내 아티스트 최다 앨범 판매량에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2023년 글로벌 앨범 차트’ 1위에 빛나는 세븐틴은 오는 6월 말 영국 최대 음악 축제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Glastonbury Festival)’에 K-

팝 아티스트 최초로 참여하고, 9월에는 유럽의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 베를린(Lollapalooza Berlin)’에 헤드라이너로 나선다. 위버스콘 페스티벌은 이 같은 글로벌 음악 축제를 앞두고 전세계 세븐틴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킬 전 초무대가 될 전망이다.

르세라핌은 지난 2월 발매된 미니 3집 ‘이지’ 타이틀곡 ‘이지’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진입하는 등 커리어하이를 달성했다.

K-팝의 태동기 아시아 전역에서 한류 열풍을 이끈 주역인 ‘동방신기’ 출신 김준수(XIA)와 김재중은 올해 위버스콘 페스티벌 라인업



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최신 앨범 ‘오렌지 블러드(ORANGE BLOOD)’로 ‘더블밀리언 셀러’작을 낸 ‘엔하이픈(ENHYPEN)’도 출격한다.